

지근욱 개인전 《금속의 날개 Metallic Wings》



Space Engine - MW 005~008

2026, Colored pencil, acrylic and UV print on canvas, Dimensions variable (approx. 204x194cm)

전시제목 : 지근욱 개인전 《금속의 날개_Metallic Wings》

전시기간 : 2026년 4월 8일(수) – 2026년 5월 9일(토)

전시장소 : 학고재 본관 (서울 종로구 삼청로 50)

학고재 오룸 (online.hakgojae.com)

출 품 작 : 회화 59 점

○ 담 당 이주연 juyeonlee@hakgojae.com

○ 문 의 02-720-1524~6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260408-20260509_지근욱, 금속의 날개 Metallic Wings

1. 전시 개요

학고재는 2026년 4월 8일(수)부터 5월 9일(토)까지 지근욱(b. 1985)의 개인전 《금속의 날개_Metallic Wings》를 연다. 2023년 이후 학고재에서 선보이는 두 번째 개인전이다. 작가는 오랫동안 회화의 본질을 탐구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선 굵기와 물질을 쌓는 행위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는가'의 재현적 차원을 넘어, '어떻게 드러내는가'라는 본질적인 존재 방식에 집중한다.

2. 전시 주제

《금속의 날개_Metallic Wings》는 회화의 본질을 관통하는 시간성과 행위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재고하는 데서 출발한다. 지근욱은 선 굵기라는 행위 이면에 잠재된 비선형적 감각에 주목하며,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새로운 차원의 회화적 경험을 제안한다. 이는 결과를 향해 수렴하는 직선적 과정이 아니다. 서로 다른 연대가 어긋난 채 한 화면에 얽혀 공존하는 '아나크로니즘(Anachronism)'적 장소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감각은 이번 전시의 핵심 물질인 '금속(Metal)'을 통해 물질적 층위로 호출된다. 금속은 과거를 응축한 시간의 결정체다. 유동적 표면을 통해 단일한 현재를 넘어선 다층적 시공간을 화면 위로 끌어올린다. 특히 금속성 표면이 빛과 맺는 유동적인 관계는 시선의 고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보는 이의 위치와 각도에 따라 서로 다른 깊이와 층위를 발생시킨다. 그로 인해 화면은 하나의 이미지로 수렴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생성되는 감각의 장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비선형적 감각은 작업 과정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이어진다. 반복되는 선 굵기는 더 이상 인과적 순서를 따르는 노동의 축적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의 행위가 끝나는 지점에서 인과적 연결이 해체되고, 다시 새로운 감각의 운동으로 재구성되는 수행적 기록이다. 마치 하나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그 이전과 이후의 시간을 동시에 감각하는 경험과 유사하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그간 작업을 지탱해온 과학적 메커니즘의 설명 체계를 벗어난다. 정신적 영역으로 사유를 확장하여 수행이 남긴 흔적을 비가시적인 감각의 영역으로 승화시킨다.

이때 '날개(Wing)'는 이 변화를 상징하는 개념적 장치다. 그것은 특정한 형상을 지시하지 않는다. 중력과 질료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운동의 방향성을 의미한다. 견고한 금속성 물질이 집요한 반복을 통해 점차 비물질적인 영성의 영역으로 이행하는 과정, 즉 물질로부터 출발한 의식이 다시 비물질적 상태로 상승하는 궤적을 은유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전시는 물질과 정신, 행위와 인식 사이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회화를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유기적인 상태로 제안한다. 기술의 속도가 지배하는 동시대적 흐름 속에서, 작가는 그 너머의 시간을 사유하며 회화의 가능성을 다시 열어 보인다. 지근욱의 화면은 고정된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다. 찰나의 빛과 영속적인 물질이 충돌하며 빚어낸 무한한 구조적 공간이다.

3. 작품 소개



Space Engine - MW 001~004
2026
Colored pencil, acrylic and UV
print on canvas
Dimensions variable

지근육은 규칙적인 선 긋기라는 엄격한 수행을 통해 회화의 물리적 한계를 탐구한다. 일정한 간격과 압력으로 선을 그어 화면을 메운다. 이 행위는 단순한 묘사를 넘어 캔버스 위에 실제적인 안료의 층위를 쌓아 올린다. 이때 발생하는 미세한 손의 떨림과 오차는 기계적인 선형 질서를 해체하며, 화면에 미묘한 용기와 질감을 형성한다. 집요한 제스처로 구축된 이 표면은 시간의 밀도가 응축된 하나의 '물질적 장(Material Field)'으로 실재하게 된다.

이번 전시에서 주를 이루는 금속성 질료는 회화에 광학적 변주를 입히는 핵심 장치다. 그것은 빛의 각도에 따라 표면의 인상을 끊임없이 변화시킨다.

정면에서는 균질한 면으로 보이던 화면이 관람자가 이동함에 따라 변화한다. 측면에서는 선의 결을 날카롭게 드러내고, 빛을 강렬하게 튕겨내며 시선을 밀어내기도 한다. 이러한 반응은 회화를 정지된 대상이 아닌, 보는 이의 신체적 움직임에 따라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재구성되는 '지각적 사건'으로 전환시킨다.



Space Engine - Metallic Disc 004
2026
Acrylic and colored pencil on
canvas
100x100cm

구조적으로는 각각의 작품들을 전시장 내부에 정교한 거리와 방향성을 가지고 배치한다. '딥필드(Deep Field)' 이미지처럼 무수한 우주의 데이터 조각들을 편집하여 하나의 거대한 성단을 시각화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 집합적 형태들은 나아가는 비행체의 궤적을 형성한다. 특히 화면을 견고하게 감싸는 차가운 스틸 프레임은 산업적인 매끄러움으로 내부의 유기적인 질감과 팽팽한 긴장을 유지한다. 또한 작품을 하나의 독립된 객체이자 강력한 구조체로 부각시킨다.

이는 한옥이라는 고유한 장소성과 만나 독특한 시공간적 대비를 이룬다. 차가운 감각을 삽입함으로써, 과거의 공간을 도래할 미래의 장면으로 전환시키는 비선형적 감각을 유도한다. 빛이 내부로 깊숙이 스며들어 서서히 변화하는 한옥은 침전되고 숙성되는 시간을 상징하는 반면, 금속성 화면이 만들어내는 즉각적인 반사와 분산은 요동치는 현대의 시간을 드러낸다.

이질적인 두 체계는 한 공간 안에서 서로를 가로지르며 충돌 없이 공존한다. 규칙과 오차, 물질과 비물질이 직조해낸 그의 화면은 관람객에게 새로운 지각의 장을 열어젖히고, 고유하게 다가오는 시공간적 조우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Space Engine - Metallic Field 010-2
2026
Colored pencil, acrylic and UV
print on canvas
40x53cm

4. 작가 소개

지근욱(b. 1985)은 그간 철저하게 계산된 규칙과 정적인 선 굵기를 통해 자율성이 제한된 상태에서 구현되는 엄격한 질서에 천착해왔다. 하지만 기하학적 완결성이 주는 안온함은 시각적 형식주의에 함몰된 내적 결핍과 방법론적 한계를 직시하게 했다. 작가는 이제 익숙한 선의 변주를 넘어, 매체와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가변적인 에너지와 그 이면에 잠재된 새로운 차원의 감각들에 주목하며 작업의 지평을 넓혀간다. 화면에 새겨지는 행위들은 더 이상 정해진 질서의 반복이 아니다. 이는 고착된 형식을 해체하고, 비선형적인 시간의 층위를 탐색하는 이행의 흔적이다. 보다 본질적인 생동감을 향해 감각의 영역을 개방하려는 끊임없는 의지의 결과물이다. 회화의 근원적 가능성을 향한 작가의 실험은 마침표를 찍지 않은 채 끝없는 외연의 확장을 지속한다.

지근욱은 홍익대학교 판화과를 전공하고, 런던 예술대학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에서 아트 & 사이언스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홍익대학교 회화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금속의 날개》(2026, 학고재, 서울), 《호를 걷는 눈》(2025, 웨데미미술관, 청주), 《글라스》(2024, WWNN, 서울), 《과오아》(2024, 성곡미술관, 서울), 《하드보일드 브리즈》(2023, 학고재, 서울), 《잔상의 간격》(2021, 에이라운지, 서울)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주요 단체전으로 《흙으로부터》(2025, 학고재, 서울), 《플라이바이》(2024, 프람프트 프로젝트, 서울), 《또 다른 물성》(2023,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살갓들》(2022, 학고재, 서울), 《아이콘》(2021, 학고재, 서울) 등이 있으며, 성곡미술관 오픈콜,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사업 유망트랙 및 신진트랙에 선정된 바 있다.

5. 작가 약력

지근욱

1985 서울 출생

학력

- 2021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박사 졸업
- 2016 영국 런던예술대학교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아트 & 사이언스 석사 졸업
- 201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판화과 학사 졸업

주요 개인전

- 2026 금속의 날개, 학고재, 서울
- 2025 호를 걷는 눈, 웨데미미술관, 청주
- 2024 글라스, WWNN, 서울
과오아, 성곡미술관, 서울
- 2023 하드보일드 브리즈, 학고재, 서울
- 2021 잔상의 간격, 에이라운지, 서울
- 2020 조율된 선, 노블레스 컬렉션, 서울

- 2019 선분의 영역, 학교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 2018 운동하는 감각, 스페이스XX, 서울
- 2017 미성숙한 구, 63아트, 서울
실제의 역동성, 리디아 갤러리, 서울

주요 단체전

- 2026 틱틱틱, 씨디에이 갤러리, 서울
당신의 세계는 안녕한가요?, 헬로우뮤지엄, 서울
- 2025 흠으로부터, 학교재, 서울
- 2024 플라이바이, 프롬프트 프로젝트, 서울
- 2023 또 다른 물성,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 2022 라그랑주 포인트, 드로잉룸, 서울
살갓들, 학교재, 서울
심연의 탐색, 라틴갤러리, 서울
하우 데이 워크, 에브리아트, 서울
아트조선스태이지 하이라이트, 아트조선스페이스, 서울
더리뷰 파라다이스시티, 파라다이스시티 플라자, 인천
- 2021 아이콘, 학교재, 서울
더리뷰, 노블레스 컬렉션;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왓 이프!, 에이라운지, 서울
뉴 타입, 디아트플랜트 요갤러리, 서울
- 2020 작업의 온도, 일우스페이스, 서울
네 개의 질문, 리디아 갤러리, 서울
- 2019 하이퍼 살롱, 유아트스페이스, 서울
아트369, 용산공예관, 서울
4482, 셀로아트, 서울
비스타아트, 비스타 워커힐 서울, 서울
언리미티드, 갤러리 B, 서울
도약으로의 여정,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외래 갤러리, 서울
플랫 무브먼트, 정샘물 플롭스, 서울
- 2018 모호함 속의 명확함: 추출하는 사람들, 최정아갤러리, 서울
하이 플로우 스크린, 딜라이트 아트 월, 딜라이트 스퀘어, 서울
교학상장전, 부산대학교 아트센터, 부산
미적 공범자, 스페이스XX, 서울
뉴 택틱스, 백룸, 서울
- 2017 비트윈, 소피스갤러리, 서울
- 2016 히스 어워드, 유니트 런던, 런던, 영국

큐리어스?, 그래너리 광장, 런던, 영국

언폴딩 리얼리티스, 런던 예술대학교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런던, 영국

2015 마인드 / 매터, 엘손 스튜디오, 런던, 영국

아이들이 못난 것은 당신 탓이다, 더 런던리, 런던, 영국

수상 및 선정

2026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사업 유망트랙 선정

2024 성곡미술관 오픈콜 선정

2021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사업 신진트랙 선정

6. 전시 서문

*서문을 발췌하실 경우, 반드시 작성자와 출처를 함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궤적, 물질의 비행

이주연 | 학고재 기획팀장

화면 위에 쌓인 층위가 미세한 파동을 일으키며 공간을 채운다. 멈춰 있는 듯하나 끊임없이 움직이고, 단단해 보이지만 어느덧 가벼운 비물질의 상태로 부풀어 오른다.

지근육의 회화는 이처럼 명료하게 이어지는 선 굵기에서 출발한다. 저마다의 색들로 그어지는 선들은 특정한 형상을 구축하지 않는다. 일정한 방향과 간격을 따라 촘촘하게 메워 나간다. 이 집요한 과정이 독자적인 밀도와 결을 형성하면, 표면에 솟아오른 세밀한 용기는 시각적 진동을 일으킨다. 시선은 더 이상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 사이를 유영하게 되며, 이미지는 읽히는 대상이 아닌 흔적을 좇는 경험으로 전환된다. 마지막 선이 놓이는 순간, 인과적인 연결은 느슨해지고 평면은 스스로의 운동을 만들어낸다. 미세한 오차와 흔들림은 선형적인 규칙을 해체시켜 화면을 끝내 멈추지 않는 과정의 상태로 남겨둔다. 지나간 움직임과 아직 도래하지 않은 움직임이 한 장면 안에서 겹쳐지듯 감지되어 각기 다른 방향의 시간이 스쳐 지나간다.

이 시간의 흐름은 이번 전시를 관통하는 '금속(Metal)'이라는 물질에서 분명해진다. 여기서 금속은 단순히 차가운 재료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수백만 년의 압력과 변성을 견디며 생성되어,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품은 비선형적 상징물이다. 캔버스에 겹겹이 축적된 물질적 흔적은 빛과 만나 반응하고, 화면에 깊은 공명을 일으킨다. 이때 금속성 표면이 발산하는 즉각적인 반사는 내밀하게 스며든 시간의 층위와 대비를 이루며, 평면을 입체적인 구조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마치 먼 과거의 빛을 투영하여 현재로 불러들이는 '딥 필드(Deep Field)¹' 처럼, 프레임 속에 갇혀 있던 재료들은 유연하게 흐르기 시작한다. 무게는 중심을 잃고, 고정된 화면은 경계를 넘어 열린 사유의 장으로 확장된다.

응축된 물질이 행위의 반복을 통해 초월적인 상태로 고양될 때, 비로소 '날개(Wing)'가 구체적인 형상을 드러낸다. 이때 날개는 중력을 거스르는 장식적 도상이 아니다. 물질이 자신의 조건을 벗어나 확장되는 운동의 형식이다. 금속의 질감은 점차 가벼워지고, 화면 너머의 비가시적인 감각으로 이행하는 통로가 열린다. 그 안에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는 시간들이 놓인 채 함께 존재한다. 이는 곧 정신의 본질에 닿으려는 날갯짓이다.

¹ 우주망원경이 매우 좁은 하늘 영역을 장시간 노출해 촬영한 사진.

“이미지 앞에 설 때, 우리는 시간 앞에서 서 있다.”² —조르주 디디-위베르만(Georges Didi-Huberman)³
의 통찰처럼, 지근육의 회화 앞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은 고정된 평면이 아닌, 시간의 흔적이다. 미술사적 사유에서 아비 바르부르크(Aby Warburg)⁴는 '고대의 잔존(Nachleben der Antike)'이라는 개념을 통해 과거의 형식이 역사 속에서 사멸하지 않고, 다른 시대의 시각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재출현한다고 보았다. 이를 이어받은 디디-위베르만 역시 이미지를 특정한 시기에 고정된 산물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연대(年代)가 어긋난 채 머무는 장소로 정의한다. 일종의 '아나크로니즘(Anachronism)'⁵이다. 지근육은 이 담론을 회화라는 실재하는 감각으로 치환해내는 듯 보인다.

《금속의 날개(Metallic Wings)》는 행위와 물질, 그리고 형태를 갖지 않은 시간들이 한 화면 위에서 교차한다. 그의 회화는 단순히 화면을 채우기 위한 기계적 행위가 아니다. 다른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실험이자 시도다. 그 사이에서 회화는 다시 하나의 궤적을 그리며 틀을 이탈한다. 아직 규정되지 않은 또 다른 방향을 향해, 비행한다.

² 조르주 디디-위베르만(Georges Didi-Huberman), 『시간 앞에서(Devant le temps)』, 2000.

³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미술사학자.

⁴ 독일의 문화사학자이자 미술사학자.

⁵ 서로 다른 시대의 시간들이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이미지 안에서 어긋난 채 중첩되거나 공존하는 상태.